

강진군 '필링 농산물' 메카로 뜬다

(Peeling=껍질 벗기)

세척 대파·깐 양파 등 1차 가공 농산물 생산시설 등 구축 계약 재배·유통망 확충...수급불안 해소·경영 안정 도모

깐 양파 등 껍질을 벗긴 1차 가공 농산물이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8월 전남도의 원예특작 생산유통분야 공모사업 3억3000만 원을 유치해 세척 대파와 깐 양파, 깐 마늘 등 '필링(peeling=껍질을 벗기) 농산물' 가공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을 갖췄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경쟁력을 갖춘 1차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유통망을 확대하는 등 '필링 농산물'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유통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마늘 300ha, 양파 20ha, 대파 10ha

등 다양한 원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가공·유통시설이 없고, 대부분 포전거래(밭때기)로 유통되고 있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은 가공·저온시설 설치로 계약재배를 통한 원예농산물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가공·판매를 농업인이 책임지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포장·물류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학교급식, 소규모 푸르미와 직거래 등 도매시장에만 편중됐던 유통망의 다변화로 농산물 수급불안을 해



강진군이 껍질을 벗긴 '필링(peeling) 농산물' 유통확대에 나선다. 사진은 깐 양파.

소, 농가경영 안정화와 소득 증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필링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원예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꾀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농업인들이 영농에 더욱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전남도, 벼수확철 맞아 일손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 적극 해소

'영농대책 상황실' 운영

농기계·인력·수매 지원

전남도는 벼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저기 벼 수확과 맥류의 원활한 파종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영농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영농대책 상황실은 도와 시·군, 농협 등 유관기관·단체에 설치해 콤바인 등 농기계 및 인력 지원, 벼 수확 상황, 보리·밀 등 맥류 파종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

항을 적극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농기계가 없어 벼 수확과 맥류 파종이 어려운 농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나 농기계 은행에서 보유한 콤바인 및 트랙터 등 농기계(9960대)를 임대해 적기에 농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촌지역 노약자, 부녀자 등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봉사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 일손 돕기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올해 쌀 안전생산과 경쟁력 제

고를 위해 벼 육묘장 18개소, 포트 육묘 이앙기 및 광역 방제기 등 농기계 347대를 지원한 바 있다. 또 50ha 이상 들녘별 쌀 경영제 22개소를 선정해 영농 자문과 시설·장비를 지원해 들녘단위 조직화와 공동농작업으로 생산비 및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있다.

또 겨울철 노는 땅이 없도록 보리·밀 등 맥류 재배 면적을 지난해(1만4000ha)보다 4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산 맥류(겉보리·쌀보리·맥주보리) 생산량은 농협과 약정 체결해 전량 수매를 하고, 밀도

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할 예정이다.

위삼십 전남도 친환경농업 과정은 "벼 수확이 늦어질 경우 깨진 쌀 발생 등 품질이 저하되므로 10월 말 이전에 수확을 마무리하고, 맥류도 적기에 파종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4년 전남도내 벼 재배 면적은 16만9000ha로 지난해(17만1000ha)보다 1105ha(0.6%)가 줄었고, 최근 잦은 강우로 전반적인 생육이 지연됐으나, 후기 기상 여건에 따라 평년작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흥시 맨손으로 물고기 잡아요
관광객들이 최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열린 개막이 체험행사장을 찾아 맨손으로 고기를 잡고 있다. 개막이는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고정목을 박아 그물을 쳐 놓았다가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어류를 썰물 때 그물에 갇히도록 해 잡는 전통 어법이다.

<장흥군 제공>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26일까지 신청 접수

전남 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이낙연)은 오는 26일까지 시·군과 해당 학교로부터 올 하반기에 선발할 전남 인재육성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본인 및 보호자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초·중·고교생은 전남 소재 학교에 다녀야 하지만 전문대생과 대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에 한해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 선발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 시장·군수, 해당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전남 인재육성재단에서 763명을 최종 선발해 총 7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소식

군산지역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이름 변경

서수·옥구·성산·임피 등

새만금산단 등과 명칭 통일

군산시는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농공단지 협의회와 입주 기업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서수농공단지는 동군산 산업단지로, 옥구농공단지는 서군산 산업단지로, 성산농공단지는 성산 산업단지로, 임피농공단지는 임피 산업단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는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2국가산업

단지, 군산 일반산업단지 등과 함께 '산업단지'란 이름으로 통일돼 사용된다.

군산시에는 ▲서수 농공단지(1991년 준공·28만9000㎡) ▲성산 농공단지(1993년 준공·14만2000㎡) ▲옥구 농공단지(1995년 준공·13만㎡) ▲임피 농공단지(2014년 준공·23만9000㎡) 등 4개 농공단지가 있다.

이곳에는 83개 업체 16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940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도로표지판, 단지입구 안내판, 버스정류장 노선도, 각종 홍보자료 등에 변경된 명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서 고추장 담그는 법 배우세요

'고추장 익는 마을' 체험 운영

전북도와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고추장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고구마 캐기 등 농작물 수확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체험비와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며, 전북도청 광장에서 버스로 출발, 체험이 끝나면 되돌아온다. 참가 희망자는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 홈페이지(www.식사랑농사랑.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9월 21·28일, 10월 11일·18일·25일, 11월 1일 등 총 6회에 걸쳐 토·일요일에 진행된다. 고추장을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은 물론 고구마 캐기 등 농작물 수확도 체험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체험비와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며, 전북도청 광장에서 버스로 출발, 체험이 끝나면 되돌아온다. 참가 희망자는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 홈페이지(www.식사랑농사랑.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경찰, 탈북여성 초청 금요 특강

북한경험담·탈북과정 등 강연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정읍에 거주하는 탈북여성 한모(35) 씨를 초청해 '25년의 종지부를 찍은 어둠의 나라, 여명이 밝아오는 제2의 조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특강에서 한씨는 30여 년간 북한에서 지내왔던 경험담과 탈북과정, 정읍에서 제2의 삶을 살면서 품게 된 꿈 등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특히 한씨는 '가는 길이 고단하더라도 웃고 가지'라는 좌우명을 항상 되새기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넘치는 열정을 전파해 감명을 받았다.

한씨는 지난 2008년 국내에 입국한 이후 대학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상담심리사와 미술치료사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함은 물론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읍경찰청은 매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금요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소자본 무점포 사업자 모집

음식물처리기 신개념 제품!



100% 국산
합법제품!

가정용 | 업소용

**일주일체험
무이자할부**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분쇄·분해 후
하수관 배출!

7일 사용 후 결정
국산 100% 합법!

- 싱크대 일체형으로 분쇄, 분해 후 하수관 바로 배출
- 환경부(2013-91)인증, KC인증 된 합법제품
- KBS등 방송3사에서 보도 된 합법제품
- 사용 및 유지관리가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 완벽한 내구성과 고장률 "0%" 철저한 A/S
- 주방 환경(위생) 획기적 변신



음식물처리기 선두 기업

(주)편한세상

구입 및 문의 ☎ 061) 245-2457